

“돈 벌려고 시작한 비누...이젠 나눔이 더 좋아”

김민우 ‘순한고집 강청비누’ 대표

삼성전자 떠나 비누와 인연 25년
매년 매출 5-8% 상당 물품 기부
수해·재난 현장 필요한 세제 지원
“도움 필요한 곳 있다면 먼저 나눔”

“나눔은 결국 나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한다면 나보다 나누면서 제가 더 행복하고, 회사도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25년째 친환경 비누·세제 업체 ‘순한고집 강청비누’를 이끌고 있는 김민우(57·사진) 대표에게 나눔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가진 것부터 살핀다. 김 대표에게 그것은 ‘비누’다.

김 대표가 나눔을 시작한 것은 비누공장을 운영한 지 5년여가 지나면서부터다.

NGO 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이 만드는 제품이 누군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후 수해 현장부터 취약계층, 코로나19 시기까지 필요한 곳이 생길 때마다 세제와 손세정제 등을 보냈다.

특히 김 대표는 지원이 상대에게 실제 필요한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수해 지역에는 세탁용 물비누와 주방용 가루비누를, 코로나19 때는 손

세정제를 보내는 식이다.

그는 “몇 년 전 서울에 큰 물난리가 났을 때에 세제를 싣고 직접 찾아가 아무 조건 없이 나눠주고 왔다”며 “지역에도 수해가 나면 연락을 달라고 해줬고, 봉사단체에도 현장에서 세제가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하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도 나눔은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 취약계층의 실내환경 개선을 위해 세안용 물비누 200만원 상당을 후원했고, 같은 달 환경의 달을 맞아 열린 ‘아름다운가게 그린파트너스’ 행사에도 세탁용 물비누 200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지난달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광주교사모임’ 소속 교사 14명을 대상으로 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며 자신이 가진 기술을 나눴다.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재능기부까지 나눔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나눔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다. 연 매출이 5억원 안팎인 강청이 한 해 기부하는 물품은 적게는 매출의 5%에서 많게는 8%가량에 이른다. 기부금 영수증으로 집계되지 않는 각종 단체와 행사 지원까지 포함하면 연간 수천만원이다.

물품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기술도 나눈다. 공장을 찾는 시민이나 단체에는 폐식용유를 활용해 직접 비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

지난 2018년부터는 몽골·감보디아·라오스 등 해외 의료봉사에도 동행하며 현지 주민과 단체에 비누 제조법을 전하는 재능기부도 이어왔다.

김 대표의 삶이 처음부터 비누와 맞닿아 있던 것은 아니다. 광주기계공고를 졸업한 뒤 삼성그룹 공채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14년간 근무했다. 자신의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회사를 나온 뒤 완구점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신문에서 ‘비누공장 인수’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공장에서 불과 30분 만에 계약을 결정한 것이 25년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에게 비누는 이제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생계를 일군 수단이자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게 해준 매개체다.

김 대표는 “사업을 시작할 때는 돈을 벌려고 했지만 하다 보니 이 일의 가치를 알게 됐다”며 “회사가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광주지방세무사회 추석 장보기 행사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는 15일 “전날 제4회 세무사의날 및 세무사제도 창설 65주년을 기념해 송정 매일시장을 찾아 추석명절장보기 및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 북·서·광산, 나주 세무사회 회원 및 사무소 직원 100여명과 박병규 광산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추석명절을 맞아 어려운 지역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무료세금상담 행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런 행사를 오는 22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광주과학관 ‘과학관에서 생일파티’ 성료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15일 “최근 지역아동센터 광주지원단(단장 최강남)과 협력해 어린이과학관에서 남구 소재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초청해 ‘과학관에서 생일파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광주과학관의 이에스지(ESG, 환경·사회·투명) 경영 실천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남구 지역아동센터 소속 9월 생일을 맞은 어린이들과 인솔 교사가 참석해 생일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레크리에이션을 시작으로 생일 케이크 자르기, 다과회, 단체 기념촬영 등 다양한 생일 축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를 기획한 조혜민 과학문화실 연구원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고 과학을 친근하고 즐겁게 경험하며 과학에 대한 관심을 키우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과학문화 체험 기회가 필요한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광주과학관은 이번 남구 지역아동센터 초청을 끝으로 전남광주통합특례시 내 5개 자치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사회공헌 생일파티 행사를 마무리했다. /오복기 기자



콘텐츠 IP 스튜디오 BS 국내외 콘텐츠 기업·기관과 MOU

ACE Fair 2026 참가 22곳과 미팅
B2C 캐리커처 선배 관람객 직접 소통

콘텐츠 IP 스튜디오 BS(대표 국병석)는 지난 10-1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CE Fair 2026에 참가해 국내외의 22개 기업 및 기관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BS는 웹툰 및 콘텐츠 IP의 해외 진출과 공동제작, IP 사업화 등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특히 행사 기간 중 인도네시아 만화협회(Asosiasi Komik Indonesia, AKSI)와 한국·인도네시아 간 만화 및 콘텐츠 산업 교류와 상호 시장 진출을 위한 MOU를 진행했으며, 주식회사 크릭스와도 IP 공급 및 공동 마케팅 협력을 위한



협력을 체결했다. 또한 BS는 기존 B2B 중심의

콘텐츠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BS 캐리커처’ B2C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일반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콘텐츠 IP 활용 모델도 함께 선보였다.

국병석 BS 대표는 “이번 ACE Fair를 통해 국내외의 다양한 기업 및 기관과 직접 만나 콘텐츠 IP의 새로운 사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웹툰을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와 IP 사업을 연결하고, 국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BS는 웹툰을 중심으로 AI 콘텐츠 및 다양한 콘텐츠 IP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자체 IP의 글로벌 진출과 콘텐츠 사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복기 기자



여수새마을부녀회, 여성복지시설 ‘사랑의 수건’ 기탁

여수시새마을부녀회는 15일 “최근 여성복지 생활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사랑의 수건 500개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나눔은 새마을지도자들의 자발적인 동참으로 추진된 ‘지도자1수건 기부 운동’을 통해 마련됐다. 회원들은 각종 행사나 기념식에서 받은 뒤사용하지 않고가정에 보관해둔 새 수건을 기부하며 자원

순환은 물론, 배려와 연대의 가치를 확산했다. 김영희 여수새마을부녀회장은 “지도자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뜻 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전달된 수건이 시설 이용자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일상 속 나눔을 실천해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백학선 서해해경청장, 진도파출소 현장 점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5일 “최근 백학선 청장이 진도파출소를 방문해 연안·해상 순찰 현황, 구조 장비 관리 상태, 긴급 출동 대비 태세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가을철을 맞아 바다낚시와 수상 레저 활동이 급증하면서 각종 해양사고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일선 현장의 초기 대응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취약 해역 안전 관리 방안과 초동 구조 체계를 살폈다.

백학선 서해해경청장은 “해양안전 특별관리 기간 동안 사고 위험 해역에 대한 순찰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도경건설, 조선대 기후위기대응사업 발전기금 기부

조선대학교(총장 김춘성)는 최근 도경건설(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전기금 3천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도경건설㈜은 올해 취약계층 지원과 장학, 유소년 교육·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기부를 이어오며 광주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 28호로 가입하는 등 신한국·박정연 대표의 가족에서 시작된 나눔이 기업의 사회공헌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평소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가져온 도경건설㈜은 이번 발전기금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전했다.

박정연 대표이사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받은 것을 다시 지역사회와 나누고 미래세대가 마주하게 될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었다”고 말했다.

신인우 대표이사는 “조선대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은 지금의 제가 성장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됐다”며 “이번 기부가 모교의 발전은 물론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해 지역과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있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춘성 총장은 “기술혁신을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동시에 가족과 기업이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확산해 온 도경건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미래세대를 위한 뜻을 담아주시는 만큼 그 뜻이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욱 기자

광주고용노동청, 전문건설업체 대표 간담회 개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15일 전문건설업체 대표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 전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문건설업 안전보건 아카데미’와 연계해 전문건설업체의 산재예방 역량을 높이는 한편, 추석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임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임금체불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광주고용노동청은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추락·끼임 등 주요 사고사례와 예방수칙

을 공유하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빠짐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사업장 2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전수조사·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역 내 임금체불의 선제적 예방에 집중하고 있다.

이도영 광주고용노동청장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흘린 땀의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찬웅 기자